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6. 11. 4.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 **주님과 같이** ---------- **다 같 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코러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벌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대표 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 **기 도 자**

성경 봉독 ---------- **창세기 33장 1~20절** ---------- **다 같 이**
(1~4절 중심 구절)

27.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8.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28.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28.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우리 인생에는 내 힘과 지혜로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절벽과 같은 두려운 존재나 인간관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20년 전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장정 400명에 대해 "야곱을 향한 에서의 적대감과 가문 간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절망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 전날 밤,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인생의 영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한 영적 체험을 마친 야곱이 드디어 두려움의 실체였던 에서를 대면하는 극적인 화해와 영적 정착의 장면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짓누르는 두려움의 대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해와 축복으로 바뀌는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인간의 계산을 넘는 믿음

본문 1~3절 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본문 1절의 "눈을 들어 보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 얍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전까지 야곱은 공포에 질려 전전긍긍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의 야곱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형 에서를 담담히 바라보는 확신에 찬 눈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적인 변화는 3절에 더 잘 나타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과거의 야곱이라면 인간적인 꾀를 부리며 맨 뒤에 숨어 안전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이제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가족들의 맨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는 세상이나 사람 앞에 더 이상 비겁하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이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400명의 장정과 같은 거대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문제 뒤에 숨어 사람을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은혜의 경험을 통해 나의 약점과 한계를 숨기지 않고 두려운 현실 앞으로 당당하게 먼저 걸어가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은혜

본문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피바람이 불 것 같았던 전장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며 사백 명을 이끌고 왔던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을 맞추며 통곡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얍복 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씨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20년 묵은 분노와 증오를 눈 녹듯 완전히 녹여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바라보며 본문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이러 오는 자의 얼굴 같았던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아가 야곱은 자기가 가진 수많은 가축과 재물을 형에게 강권하여 선물로 줍니다.
본문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예전에는 형의 것을 빼앗지 못해 안달이 났던 움켜쥐는 인생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라며 기쁘게 돌려주고 베푸는 손길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 힘으로 바꾸려 하면 도리어 상처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화해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용서와 은혜를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나의 하나님

본문 12~15절 12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3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14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5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형 에서는 극적인 화해 이후 야곱에게 동행을 제안하거나 자신의 거처인 세일로 함께 가자고 정중히 권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식들의 연약함과 가축의 상황을 지혜롭게 핑계 대며 이를 사양하고, 가나안 지경인 숙곳을 거쳐 마침내 세겜 땅에 정착합니다.

이 장면에 야곱의 성숙한 영적 분별력이 담겨 있다고 평가합니다. 에서는 칼을 믿고 사는 세상 권력의 상징입니다. 만약 야곱이 에서의 호의를 덥석 받아들여 그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안락함과 세상 군대의 보호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지경에 머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사고 장막을 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19~20절 19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이름의 고백을 통해 영적 대전환을 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위기 때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며 타인의 신앙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타인의 하나님이 아닌 '나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혹시 부모님의 신앙, 혹은 목회자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얹혀 가는 '묻어가는 신앙'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위대하게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눔 ---------- 다 같 이

1. 야곱이 두려움을 이기고 형 에서에게 먼저 나아간 것처럼, 지금 내가 믿음으로 용기내어 마주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2.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보며, 우리도 용서하거나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하나님을 단순히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 보 기 도 ---------- 담임 목사님을 위해 ---------- 다 같 이

1.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2.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있도록
3.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4. 인도네시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5. 목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마무리 기도 ---------- 다 같 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용기 있게 나아가고 형과 화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다른 사람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